

統一新羅時代の 墓儀石物

石人 石獸 研究

朴 敬 源

一、序 論

太宗 武烈王은 五三歲에 新羅 二九代의 王位를 계승하여 七年이란 짧은 期間밖에 在位하지 못하였으나 그는 王位에 오르기 前부터 金庾信과 더불어 善德 眞德의 두 女王을 보필하여 高句麗 唐 日本에까지 外交活動을 펴고 唐의 文物을 積極의 으로 받아들여 三國統一의 基盤을 닦았다.

王은 生前에 統一大業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그의 遺業은 六六八年 아들인 文武王에 의하여 完成되었고 그 뒤로 三六代 惠恭王까지 八代 一二〇年間的 王位가 그의 直系子孫으로 이어지면서 新羅는 가장 安定되고 繁榮을 누렸던 黃金期를 맞이하게 된다.

이 時代는 우리 美術史에 있어서도 안으로 三國의 地域樣式을 統合하고 밖으로 盛唐美術을 攝取하여 建築 彫刻 工藝等 美術의 全分野에서 史上 最高의 水準에 到達하였다.

國力の 富強과 佛教의 隆盛에 따라 寺院의 建立과 塔像의 造成은空前의 盛況을 이루었고 그 石造美術은 新羅의 特色을 發揮하여 佛國寺 石窟庵 같은데에 唐을 능가하는 優秀한 作品들을 남겼다.

이 時代를 代表하는 石造美術은 寺院의 堂塔 佛像들의 佛教關係 造形物이 그 主流을 이루고 있는데 대하여 이와는 性格도 다르고 數의 으로 多 貧弱한 存在이기는 하나 陵墓의 墓儀石物들도 이 時代의 造形美術에

特色있는 하나의 作品群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두갈래의 作品들은 다같이 唐文化의 影響下에서 發達한 것이지만 佛教 塔像들이 根本的으로 敎理나 儀軌에서 벗어나지 못한데 비하면 陵墓의 墓儀石物들의 造形은 그보다는 多少 自由로운 一面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하여 石碑 萃表石 石人 石獸 등의 石物은 대체로 唐의 制度를 본받으면서도 墳壟의 外護壯嚴에는 獨自의 樣式을 創造하였던 것이다. 墳壟 周圍의 外護石에 十二支神像을 새기고 石欄干을 돌리고 薄石을 깔아서 壯嚴한 陵墓는 이 時代가 나온 壯麗한 造形作品의 하나이다.

「이것이 統一新羅時代에서만 볼 수 있는 獨特한 樣式이기 때문에 從來에 學界의 關心이 여기에 集中된 反面에 石人 石獸 등의 墓儀石物들은 唐制度의 移植이라는 觀念이 앞서서 크게 注目を 받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墓儀石物은 다음과 같이 보는 사람에게 따라 各樣 各색으로 評價되어 왔다.

「統一時代 陵墓의 石人 石像 같은 裝飾은 全的으로 唐의 規模에 따른 것이나 腰石에 十二支肖屬像을 彫刻한 裝置 같은 것은 唐에도 없는 特異한 것이다. ……唐의 文物이 影響을 주었으나 그대로의 移植이 아니고 거기에 新羅文物의 獨自의인 모습이 있었던 것이다. (1)

「掛陵 聖德王陵 興德王陵에는 따로(十二支神像 以外에) 文武石人 石獅 萃表 龜趺 등의 表飾物이 配置되어 新羅 墳墓中 가장 完備된 墓制를 보여 주고 있으나 이러한 것은 모두 唐의 制度에 따른 것이다. (2)

이와 같이 唐制에 따른 것임을 強調하여 造形에 대한 說明을 回避한 것이 있는가 하면 反對로

「石人 石獅 萃表 龜趺 등의 表飾彫刻은 十二支生肖像과는 傾向을 달리 하나 興德王陵의 例는 十二支의 彫刻보다 오히려 優秀하고 掛陵에서 그 卓越한 十二支像에 못지않은 彫刻으로서 新羅藝術을 代表하는 彫刻작이라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3)

「……各像의 構想手法은 果然 新羅統一時代의 代表的인 作品답게 참으로 놀랄만 하다. 文武石人의 포이즈 手法등……참으로 대단한 作品이다」(4)라고 격찬한 評價도 보인다.

이러한 評價는 결국 要約하면 「唐의 樣式에 따른 優秀한 作品이다」라는 지극히 常識的인 論評일뿐 作品 自體의 說明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新羅의 墓儀石物이 形制上 唐의 그것에 따랐음은 事實이나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따르고 또 만들었느냐는 造形上의 具體的인 說明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邊英燮氏가 掛陵의 石人 石獸를 造形面과 配置關係에 새로운 照明을 試圖한 것은 注目할만한 일이었다(5) 秦弘燮教授는 佛敎 建造物의 獅子의 用例에서 墓儀石獸와의 樣式上의 關聯을 示唆한 바 있다(6).

本論考에서는 이와같이 거의 未開地와도 같은 新羅 墓儀石物에 대하여 우선 그 來歷과 性格을 考察하고 唐과의 比較에서 그 制度上의 異同과 造形上의 特色을 밝혀 보려고 한 것이다.

그過程에서 十二支神像의 壯嚴樣式 以外는 모두가 唐制의 移植으로만 생각했던 墓儀石物에도 唐의 그것과는 異質的인 要素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즉 陵墓 周圍에 四獅子石像을 配置한 樣式은 唐에서도 볼 수 없는 特異한 例로서 이것은 塔婆의 四獅子壯嚴과 같은 意圖에서 造形된 것으로 推測되었다.

이와 같은 樣式의 出現은 塔婆와 王陵의 壯嚴에 있어서 一脈相通하는 造形意識의 흐름이 있음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十二支神像의 壯嚴과도 不可分의 關係에서 究明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新羅 墓儀石物의 規範은 唐에 있고 그 起源은 적어도 後漢時代 以前

까지 溯及한다.

따라서 그 출처리 만이라도 把握하려면 中國의 資料 缺이는 不可能한 일이다. 그러한 어려움에서 中國 楊寬教授가 東京大學에서 講演한 「中國皇帝陵의 起源과 變遷」에서 最近의 資料를 多少나마 引用할 수 있었음은 多幸한 일이었다.

新羅王陵의 名稱에 대하여는 混同을 避하기 위하여 從前에 通用하여 온 陵名을 그대로 쓰기로 하였으나 掛陵 같이 이미 學界의 定說로 굳어진 것은 元聖王陵(掛陵)으로 眞聖女王陵은 傳眞聖女王陵으로 表示하였다.

또 墓儀石物中에서는 碑碣이 가장 重要한 것으로 보겠으나 이것은 金石文과의 關聯도 있으므로 本論考에서는 特別한 論議를 하지 않았다.

二、墓儀制度

一、墓儀石物の起源과 發達

新羅 陵墓에 設置된 各種石物들은 그 性格에 따라 두 갈래로 區分할 수 있다.

첫째는 直接 墳壟을 保護 壯嚴하기 위한 護石 石欄干 薄石등이고 둘째는 墓의 儀衛로 墓前에 設置한 石床과 神道 兩側에 列立한 石人 石獸 萃表石 碑碣등이다.

이러한 石物들을 從前에는 一括하여 陵墓石物 外護石物 墓飾彫刻 墓飾石物등 여러가지로 불러 왔었다. 이와같이 一定한 名稱이 없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名稱들이 다같이 適切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 대하여 尹武炳教授는 「武寧王陵 石獸의 研究」(7)에서 陵墓의 區域內에 여러가지 石物을 施設하는 制度 즉 中國의 墓儀制度를 紹介하면서 「墓儀石物」이란 말을 쓰고 있다.

앞에서 例舉한 各種 石物들 指稱하는 알맞는 말인것 같아서 筆者도

여기에 따르기로운 것이다.

즉 墓儀石物이란 墳壘을 保護 壯嚴하기 위하여 그 周圍에 施設한 外 護石物과 神道를 中心으로한 墓域內에 設置한 儀衛石物을 모두 包含한 것이나 本論考에서는 範圍를 좁혀서 後者를 뜻하는 말로 쓰기로 하였다. 그러나 때로는 넓은 뜻으로 混用된 경우도 없지 않다.

現在 中國에 傳存하는 가장 오래된 墓儀石物은 前漢 武帝 때의 名將 霍去病(—BC 一—一七)의 墓前石像들이다.

이 石像群은 所謂 踏奴馬像과 虎馬像 등의 動物像 一四點인데 이와 같은 많은 石像을 墓前에 陳列한 것은 匈奴征伐에 뛰어난 그의 武勳을 表彰하기 위한 特殊한 例이며 後世의 墓儀石物과는 그 性格이 같지 않다 고 보겠다.

墓前에 石祠 石闕을 세우고 神道の 兩側에 石人 石獸를 세워 墓를 儀衛하는 風習은 後漢에 내려와서 厚葬의 風에 따라 一般化한 것으로 생각된다.

後漢時代의 墓儀石物이 「水經注」 등의 文獻에 散見되나 現存하는 遺物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河南省 登封縣 嵩山中岳廟 石人 一雙.

山東省 曲阜縣 石人 一雙.

河南省 南陽縣 宋資墓 石碑 天祿 辟邪 一雙.

山東省 嘉祥縣 武氏祠(一四七 A·D) 石獅子 一雙.

四川省 雅安縣 高頤墓(二〇九 A·D) 石獅子 一雙.

宋資墓(一六七 A·D)의 石像은 實在動物 아닌 靈獸를 配列한 例로서 碑前에 二軀의 石獸가 있는데 各各 그 膊上에 「天祿」「辟邪」라고 새겨져 있다.

「後漢書 靈帝紀 中平三年春二月 復修玉堂殿 鑄銅人四黃鍾四及天祿蝦蟆……」
의 記事注에

「……天祿獸也……案今鄧州陽南縣北有宋資碑 旁有兩石獸鵠其膊一日天祿 一日辟邪 據此即天祿辟邪並獸名也……」

이 天祿 辟邪에 대하여 漢和大辭典에는 宋書 符瑞志를 引用하여 左側의 一角者는 天祿이고 右側 二角者는 辟邪로서 形은 鹿을 닮고 尾는 길 다 라고 解說하고 있다.

天祿은 即 天鹿으로서 麒麟과 마찬가지로 神話에 나오는 神鹿으로 吉祥을 象徴하고 災厄을 除去하기 위하여 墓前에 세워진 것이다.

이러한 碑·獸 以外에 神道の 兩側에는 標識로서 石表(柱)가 세워지고 陵墓를 守護하는 石人이 세워졌다.

山東省 曲阜 城外에서 發見된 二軀의 石人像에는 各各 「亭長」「府門之卒」이란 職名이 새겨져서 일찍 부터 널리 알려져 왔다.

亭長은 門亭長이라고도 불려지는 太守官衙의 守門長의 官名이며 「府門之卒」은 門衛兵卒이다.

이 石人은 樂安太守의 官名으로, 卞서 一四六一—一五六年으로 推定되는 것인데 뒤에서 다시 言及하겠으나 墓儀石人像의 性格을 알 수 있는 좋은 資料라 하겠다.

魏晉 南北朝時代로 내려와서 中原에 進出한 北方系의 民族들은 盜掘을 꺼리고 또 그들 固有의 風習에 따라 潛埋方式을 踏襲하여 墳壘을 만들지 않았다.

그러므로 墓儀石物의 空白時代라 하여도 過言이 아닌데 一九七六年 北魏 孝莊帝(五二八—五三〇) 靜陵에서 出土한 石人像이 唯一한 例로서 이 石人像은 後漢 以來의 傳統을 보여주는 좋은 資料이다. (8)

이 石人에 대하여는 뒤에서 다시 言及하겠으나 長劍을 잡고 直立한 衛士像으로 이와같은 樣式은 以後 唐代에 까지 繼續된다.

한편 南朝에서는 後漢 墓儀制度의 傳統을 이어 石華表 石碑와 더불어 石獸의 發達이 뚜렷하다.

이 石獸들은 天祿 辟邪形의 神獸로서 S字形의 몸뚱이에 머리를 높이

치켜들고 한쪽 발을 앞으로 내딛는 자세이며 가슴에는 아름다운 날개가 돌친 神獸의 모습으로 造形되었다. (圖一)

中國에서는 이러한 神獸를 飛馬 또는 飛龍馬라고 부르고 日本에서는 龍馬 또는 天馬라고 부르기도 한다. (9)

尹武炳教授는

「六朝時代의 陵墓에서는 다른 石獸類는 볼 수 없는 것 같으며 단지 한 雙의 天祿 辟邪를 配置하는 것을 하나의 定式으로 삼고 있었다」(10) 하였으며 楊寬教授는

「嚴密하게 말하면 帝王의 陵前에만 石駢驕이나 石辟邪 같은 獸神을 配置하고 臣下에게는 使用이 許用되지 아니하게 된 것은 南朝 以後의 일이다」

라고 하였다. (11)

그러나 이러한 墓儀石物에 對하여 嚴格한 區別이 생긴 것은 唐代에 가서 制度的으로 굳어진 것 같다.

2、唐의 墓儀制度

唐 高祖의 獻陵은 後漢의 制度에 따랐고 太宗은 九峻山에 山陵을 經營하였으므로 唐의 典型的인 陵寢制度가 定立된 것은 高宗 乾陵에서 부터이다.

太宗은 生前에 自己의 壽陵을 造營하면서 天下平定에 功이 많은 臣下들의 功績을 記念하기 위하여 自己의 陵 附近에 功臣들의 陪葬을 許可하였다.

陪葬者는 太宗 以後의 諸王 公主 등 宗室과 魏徵 房玄齡 溫彥博 李靖 李勣 尉遲恭 등의 功臣을 合하여 二〇名이 넘는다 고 한다.

高宗 以後 歷代 帝陵은 모두 高宗 乾陵의 制度에 따랐으나 若干 規模가 작아지고 陵前에 列立한 小數民族의 酋長群像이 없어진 것 밖에는 별다른 變化가 없는 것 같다.

以上 七世紀末에서 九世紀初까지의 帝陵과 前記 太宗 昭陵의 陪葬墓 중에서 墓儀石物의 形制를 알 수 있는 各層 身分의 代表的인 例를 간추려 一覽表로 提示한다.

墓儀石物 一覽表

陵 墓 名	表石	石 碑	石 人	石 獸
高宗乾陵 (六五〇—六八三)	一雙	一	一〇雙	石獅一雙、石馬五雙、駝鳥一雙(浮彫)飛馬一雙。
肅宗建陵 (七五六—七六七)	一雙	一	一〇雙	石獅一雙、石馬五雙(今無)駝鳥一雙、飛馬一雙
德宗崇陵 (七八〇—八〇四)	一雙	一(臺石)	一〇雙	右 同
懿德太子陵 (中宗長子)	一雙	一?	一雙	石獅一雙
永泰公主陵 (中宗七女)	一雙	一?	一雙	石獅一雙
長樂公主墓 (太宗皇女)	一雙	一?	一雙	石虎一雙 石羊一雙
李靖墓	一	?	一雙	石虎雙石 石羊一雙
李勣墓	一	?	一雙	

이 一覽表의 陵墓들은 時期的으로 新羅 墓儀制度에 影響이 깊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인데 여기서 그 身分上의 差異가 뚜렷이 나타난다.

즉 高宗 乾陵의 蕃酋群像은 特殊한 例外로 돌리고 첫째로 눈에 띄는 것은 飛馬(龍馬) 駝鳥(朱雀) 같은 神獸의 性格을 가진 石獸는 皇帝의 陵에서만 볼 수 있는 사실이다.

碑는 陵과 墓에 身分의 區別 없이 세워졌고 華表石은 長樂公主의 墓에는 보이거나 李勣 李靖 같은 大功臣의 墓에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것이 陵·墓의 區別 없이 皇族에 限하여 세웠던 것인지 또는 後世에 없어진 것인지 現在의 資料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石獅子는 墓에는 볼 수 없고 皇帝의 陵이나 「號墓稱陵」한 皇族의 陵에 限定 되었다. 反面 石虎 石羊은 陵에는 볼 수 없고 墓에만 쓰여진

것 같다. (12)

楊寬教授는 이와 같은 예를 들어 「唐代에는 一般官僚의 墓에 石獅子를 配置한 例를 볼 수 없다」라고 斷定하고 있다.

이와 같은 制限은 石獅子가 特殊한 石獸이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이 時代 陵墓의 規模와 石獅子의 性格에서 必然的으로 생긴 制限이었다는 것 같다.

唐代의 陵에는 高宗 乾陵(圖 2)에서 보듯이 方形의 圍牆을 둘러고 그 四邊의 中央에 東 青龍 西 白虎 北 玄武 南 朱雀의 四門을 열고 各門의 兩側에 石獅子像을 對立하였다. 所謂 門戶를 守護하는 「門獅」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圍牆이나 四門이 없는 墓에는 石獅子가 없는 것이 當然하다. 이와 같이 帝陵에는 四方에 四雙의 石獅子를 配置하는 것이 定式인데 覽表의 高宗 肅宗 德宗의 各陵에 石獅子 一雙으로 되어 있는 것은 墓儀石物을 設置하는 南門 밖의 神道 兩側의 石物만을 表示한 때문이다. 以上の 唐代 墓儀制度和 新羅의 그것과를 比較하여 보면 新羅 墓儀制度가 唐의 어느 階層에 基準한 것인지 또는 部分이 어떻게 變化한 것인지를 大略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三、新羅의 墓儀石物

1、新羅의 墓儀制度

統一新羅時代의 陵墓 가운데 墓儀石物을 갖춘 것은 다음의 八基이다.

墓儀石物 一覽表

陵墓名	十二支像	簿欄	石干	石碑	萃表石	石人	石獸	石床
聖德王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景德王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元聖王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憲 德)	憲德王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興德王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傳眞德王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方形墳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金庾信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기에서 景德王陵 傳眞德王陵 方形墳 金庾信墓의 四基는 十二支神像의 外護壯嚴뿐이고(景德王陵에는 石床이 있고 金庾信墓에는 石床과 石碑가 있었다) 墓儀石物이 完備된 것은 聖德王陵 元聖王陵(掛陵) 興德王陵인데 憲德王陵에도 石人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 四基를 新羅 墓儀制度의 標準으로 생각할 수 있다. (14)

이 四基가 造營된 時期는 聖德王陵에서 興德王陵까지의 一〇〇년(三七六—八三五) 동안이 되는 셈이다.

그리고 唐 高宗 乾陵은 聖德王陵의 造營보다 約五〇年이 앞선다.

그 五〇年 동안에 唐의 墓儀制度가 新羅에 傳하여지고 消化되어 새로운 開花를 보게 된 것이다.

前掲한 唐의 墓儀 一覽表에서 年代와 墓格이 相當하는 것을 新羅와 比較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異同이 뚜렷이 나타난다.

墓格 新羅王陵은 唐의 懿德太子 永泰公主 같은 皇族墓중에서도 勅令에 의하여 格을 높혀 「陵」으로 呼稱한 皇族陵과 같은 基準으로 造營하였음이 分明하다. 이와 같은 墓格으로 王陵을 造營하였다는 것을 前提로 하여 新羅墓儀의 하나 하나를 比較하여 보면 그 性格이 좀더 明白하여지는 것이다.

石碑 唐과 마찬가지로 身分에 관계 없이 세워졌다.

萃表石 唐에서는 身分上の 制限이 있었던 듯 하고 新羅에서도 王陵에 限定되었던 것 같으나 確實하지 않다. 뒤에서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한다. 石床 唐의 陵에서는 볼 수 없으나 新羅에서는 身分의 區別없이 꼭 必要하였기 때문에 墓儀石物이 없는 陵墓에도 石床만은 設置하였다. 그 理

由는 뒤에서 다시 說明하였다.

石人. 石人 그 自體에는 差別이 없으나 그 數에 嚴然한 制限이 있었던 것 같다. 唐의 帝陵은 一〇雙이고 其他는 皇族의 陵이나 臣下의 墓가 다같이 一雙으로 되어 있다.

新羅의 경우 聖德王陵은 一雙인데 元聖 興德 兩陵에는 胡人形의 衛卒 一雙이 附加되어 있는 것이 異彩롭다.

石獸. 陵에는 石獅子 一雙뿐이고 皇族이라도 墓의 경우는 臣下墓와 같이 石獅子를 세우지 못하고 石虎 石羊들을 세웠다.

新羅王陵에는 唐制와 달리 二雙의 獅子를 陵의 四方에 配置한 것이 特異하다.

그 理由에 대하여는 뒤에서 細密 하게 檢討하겠으나 이와 같이 一見 唐의 形制와 同一하게 보이는 墓儀制度에도 新羅 獨自의 特色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石 床

唐의 典型的인 陵寢制度는 高宗 乾陵의 平面圖(圖2)에서 보는 바와 같이 陵의 正南 朱雀門을 들어서면 陵碑와 獻殿이 서 있다.

獻殿은 寢殿이라고도 하여 上陵之禮 朝拜之儀 各種 祭祀等 主要한 儀式을 舉行하는 建物이다.

寢殿은 帝王의 陵에만 세워지는 것이므로 陵寢이란 말도 이러한데 연유한 것이다.

其他의 陵墓에서도 祭祀를 위한 施設은 갖추었을 것으로 推測되나 그것이어떠한 形態의 施設이었는지 唐代의 資料를 찾지 못하였다.

新羅의 경우는 孝昭王陵이나 神文王陵에서 보는 바와 같은 石壇의 形式에서 차츰 石床 形式으로 移行한 듯하다.

石床의 前後 및 左右側面의 面石에는 優麗한 眼象이 새겨졌는데 이러한 眼象에서는 같은 時期의 佛教關係 造形의 질은 影響을 直感할 수

있다.

어쩌면 石床의 形態 自體가 頂禮石이나 香爐臺 같은 寺院의 石造物과 같이 關聯된 造形이 아닌가 싶다.

石床一覽表

陵 名	床 石 (cm)	高 (cm)	眼 象
聖德王陵	二四二×一二三	一一六	前面二區 側面一區
景德王陵	二四〇×一二〇	一一八	前面二區 側面一區
元聖王陵 (掛陵)	二五三×一二八	一一〇	前面二區 側面一區
憲德王陵	上面에 蓮萃文		眼象前面二區(一五) 前面面石一四〇× 八五 眼象二區
興德王陵	?	?	前面面石一四〇× 八五 眼象二區
金庾信墓	?	?	面石一部 殘存眼象 있음

3、萃 表 石

萃表 萃表柱 石柱 石萃表 萃表石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辭典에 의하면

(1) 爲政者에 대한 不平을 人民들이 쓰도록 通路에 기둥을 세우고 그 上端에 橫板을 붙인 것

(2) 墓所 앞의 門

(3) 城廓 官署의 入口에 세운 門

이라 하였으니 그 起源을 대략 짐작 할만 하다. 漢代에는 墳墓에 祠堂을 짓고 石人 石獸를 配置하고 石闕을 두어 墓表로 하였으나 南朝의 帝陵이나 貴族의 墓에는 石闕 대신 一石으로 된 石柱 一雙을 세워 裝飾하는 風習이 行하여 졌다. (6)

그 石柱 중에는 表面에 많은 홈을 파고 柱頭에 蓮華座와 獅子를 彫飾하고 石柱의 中間에 被葬者의 姓名을 새긴 四角의 額을 붙인 南朝의 遺物들이 南京附近에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樣式이 後代에 繼承되지 않은 것은 唐代에 들어와서 碑碣이 크게 發達한 때문이다. 즉 碑碣의 發達함에 따라 墓表의 本義는 여기에 吸收되고 萃表石은 단순한 神道入口의 標柱 같은 存在가 되어버린 것이다.

萃表의 名稱이 끝내 定立되지 못하고 여러가지로 불려지게 된 것도 이런데 그 原因이 있는 것 같다.

新羅에는 이와같이 이미 形骸化한 石柱形式의 萃表石이 傳來된 것이다. 지금 當初의 萃表石이 傳存하는 것은 元聖王陵(掛陵)과 興德王陵에 다음과 같이 各各 二雙의 遺例가 있을 뿐이다.

萃表石 一覽表

元聖王陵 (掛陵)	東八角 (邊長一五一一八cm)	高二一五臺 "一九七"	臺石埋沒 " "
西	" "	" "	" "
興德王陵	東八角 (邊長一九cm)	高二四五臺 "切斷"	臺石八三×八三 (八角二假과인)
西	" "	" "	" "

이 四基 중에서 完全한 것은 元聖王陵東의 一基 뿐이고 同陵 西興德王陵 東은 거의 完形이나 柱頭部에 缺損이 있다.

完全한 元聖王陵의 一基도 臺石은 埋沒 되었으나 興德王陵 西柱의 臺石이 露出되어 있으므로 그 原形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이 時代의 萃表石은 方形의 臺石에 구멍을 파고 그 위에 邊長 一八cm 가량의 八角石柱를 세운 것으로 臺石이나 石柱의 表面에는 아무런 銘이나 彫飾이 없는 극히 素朴한 形式이다.

興德王陵 西柱 臺石의 경우 柱孔의 周圍에 八角의 二假式과임을 刻出한 것이 唯一한 裝飾이라 하겠으나 元聖王陵의 臺石은 埋沒되어 잘 알 수 없다.

柱頭部가 完全한 것은 元聖王陵의 東柱 뿐인데 거기에는 작은 半球形을 상투 같이 다듬었을 뿐으로 퍼 粗略한 造形이다.

그러나 이것이 高麗時代 以後에 寶珠形 같은 樣式으로 바뀌면서 이름도 石望柱나 望柱石이니 하여 裝飾化하게 되는 原形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 한가지 追加하여 再考할 것은 聖德王陵과 憲德王陵의 萃表石이다.

聖德王陵의 墓域은 元來 지금 같은 狹少한 墓域이 아니었을 것이다. 現在의 石床에서 陵碑의 龜趺까지의 거리만 하여도 一〇〇M가 넘는다.

元聖王陵이나 興德王陵과 비교하여도 遜色이 없는 規模의 陵墓로 짐작된다.

이러한 넓은 墓域을 비워 두고 現在와 같이 一〇M 안밖의 비좁은 空間에 墓儀를 配置 하였을 리도 없거니와 現在의 墓儀石物도 順序가 뒤바뀌어서 그것들이 모두 原位置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陵前面의 神道 區域에 田畝으로 開墾되면서 萃表石 같이 아무런 彫飾이 없는 石柱는 破損 埋沒 또는 다른 곳에 流用되었을 것으로 推測되는 것이다.

憲德王陵의 경우도 事情이 이와 비슷하다.

憲德王陵은 그 位置가 좋지 않아 北川의 洪水로 그 殆半이 流失 破壞되었던 王陵이다.

「여기에는 十二支神像의 外護石 五個와 石欄干 七本 萃表 一雙 陵表 一基 墳前에 石蓮臺 一個가 있는데 石欄과 石(蓮)臺가 當時의 作으로 보인다.」

마로 本墳의 石人으로 보이는 (石)像 頭部가 遺存하였으나 數次의 洪水로 오래전에 原位置를 잃고 지금은 慶州博物館에 옮겨져 있다.

(17) 이것은 有光教一氏의 憲德王陵에 관한 記錄인데 石萃表와 陵表는 後代의 補光으로 본 것 같다.

이 王陵은 最近의 補修工事時에 이러한 墓儀石物들을 모두 整理하여 筆者는 直接 보지 못하였으나 工事 施行前의 寫眞에는 石床의 石材같은 것이 分明히 보인다.

이러한 前後 事情을 감안하면 이 王陵도 十二支神像 壯嚴과 墓儀石物

을 完備한 陵이었음이 틀림 없을 것이다.

萃表石이 이미 그 本義를 잃고 단순한 標柱같은 存在가 되었다 하더라도 아무나 함부로 세울 수 있는 石物은 아니었던 것 같다.

憲德王陵에 남아 있던 萃表石이 有光氏의 見解대로 後作이라 하더라도 原形을 復舊한 補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四、石 人

1、冠劍石人

陵墓나 祠廟의 前面에 石人 石獸를 配列하는 것은 前漢時代부터 시작되어 後漢時代에 一般化 하였음은 이미 言及하였다.

山東省 曲阜縣에서 出土한 後漢 樂安太守 墓前의 二軀의 石人에는 各 各 그 가슴에

「漢故樂安太守慶君亭長」

「府門之卒」

의 刻文이 있어서 石人의 性格을 스스로 表明하고 있는 것이다(點筆者) 여기에 亭長이라는 것은 元來 鄉亭(末端行政區域)에 駐在하는 官吏의 長을 뜻한 것이나 나중에는 太守 官衙의 門을 지키는 官吏의 長도 「亭長」 또는 「門亭長」으로 부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石人 一雙은 「府門의 長」과 「卒」로서 太守 墓前의 警護로 配列한 石像임이 分明하다.

樂安太守 慶君은 後漢 順帝(一二六—一四四) 末年에 樂安國의 相으로 있다(가 本初元年(一四六)에 樂安國이 樂安郡으로 되면서 그대도 樂安太守로 任命된 사람이다. (18))

따라서 이 石人像은 그 身分과 年代가 確實한 唯一한 資料라 하겠다. 北魏 孝莊帝(五二八—五三〇)의 靜陵에서도 一九七六年 石人像과 石人頭가 出土하였다.

이 石人像은 二片으로 切斷되었으나 身長 三·一四M 兩手로 劍을 握

고 直立한 姿勢의 石人이다(圖5)

이와같이 執劍한 石人像은 後漢의 形式을 繼承한 것으로 以後 唐代에 까지 踏襲되는 것이다. (19)

初唐 以來 造形美術의 寫實主義의 傾向으로 墓儀 石獸같은 것도 前의 面目을 一新하였으나 石人像의 造形은 거기에 비하여 크게 뒤떨어진 感覺이 없지 않다.

앞에 北魏 靜陵의 石人像(圖五)과 唐 高宗 乾陵의 石人群像(圖六)을 비교하여 보면 左右對稱 直立不動의 硬直된 彫像이라는 점에서 아무런 變化도 느낄 수 없다.

高宗 以後로도 歷代의 陵寢이 乾陵을 模範으로 하였기 때문에 唐代의 石人樣式에는 큰 變化가 보이지 않는다.

石柱의 四面에 人體의 四面觀을 浮刻하여 그것을 꾸며 맞춘 構造的 造形物이다.

같은 時代의 佛像 彫刻이 人體의 理想的인 美를 追求한데 비하면 너무나 對照的이다.

墓儀라는 그 性格上 人體의 美를 意識하기 보다는 衣冠束帶의 外形과 威嚴을 앞세웠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唐을 본받은 新羅의 石人像도 例外일 수는 없었을 것이나 多幸히 新羅는 여기에 唐을 능가하는 作品을 남기고 있다.

唐 高宗 乾陵의 石人을 다시 살펴 보기로 하자.

이 石人群 一〇雙은 모두 同一形의 石像인데 長安圖志所載의 「唐高宗 乾陵圖」에는 다음과 같은 說明이 붙어 있다. (·點筆者)

番酋石像高七尺

冠劍石人二十各高一丈五尺

石馬十各高九尺

朱雀二各六尺

石幡二高二丈

飛龍馬二各高一丈五尺

여기에 「冠劍石人」이란 말이 보이는데 이 말은 「冠을 쓴 石人과 劍을 잡은 石人」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으나 寫眞이나 圖面上으로는 아무런 差異가 없는 同一形의 石像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冠劍石人」은 冠을 쓰고 正面中央에 세운 長劍의 자루를 두 손으로 잡은 石人」을 뜻하는 것으로 解釋된다.

앞에서 紹介한 北魏 孝莊帝 靜陵의 石人(圖五)과 똑같은 石人이다.

이러한 冠劍石人에 대하여 冠을 썼으니 文官像이라던가 劍을 잡았으니 武官像이라고 그 外形만으로 斷定할 問題가 아니다.

石人 本來의 性格 즉 「門亭長」이란 衛士의 모습을 造形한 것이 冠劍石人樣式이 된 것이다.

中國의 石人은 唐代까지 이와같은 「冠劍樣式」으로 그 傳統이 이어졌던 것이다.

2. 新羅의 石人

新羅 陵墓의 石人은 다음의 三陵에 傳存하는 一〇軀가 全部이다.

憲德王陵에도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元來 石人이 세워졌던 것으로 推測되나 資料가 不充分하므로 論議의 對象에서 除外하기로 한다.

이 三陵은 陵名이 거이 確實하고 또 外護壯嚴과 墓儀石物이 完備된 代表的인 陵墓로서 墓儀制度의 基準이 될만 하다.

石人一覽表

王陵名	石人(衛士形)	石人(衛卒形)	備考
聖德王陵	東身高二〇五CM 西頭部殘存	東身高二三八CM	臺石一〇一×八七CM
元聖王陵 (掛陵)	東〃二五五 西〃二六七	東〃二四七 西〃二四七	衛士臺石 一一五×一一〇×三〇 衛卒臺石 一一〇×一一〇×? 衛士臺石 一一三×〇一×? 一一〇五×九三×?
興德王陵	東〃二八二 西〃二八五	東〃二七一 西〃二七二	

이것을 唐의 制度와 比較하여 보면 여러 面에서 新羅石人의 實像이 좀더 明白해진다.

石人比較表

唐	新羅
高宗陵·歷代帝陵 一〇雙	聖德王陵 一雙
皇族陵 一雙	元聖王陵(掛陵) 二雙
皇族墓 一雙	興德王陵 二雙
功臣墓 一雙	憲德王陵 ?

唐의 歷代帝陵은 例外없이 「石人 一〇雙」이고 其外는 陵墓의 身分에 關係없이 모두 一雙씩이다.

新羅의 王陵은 聖德王陵이 一雙인데 元聖王陵과 興德王陵은 二雙으로 되어 있다.

聖德王陵의 石人에 대하여 文化財管理局刊 文化財大觀에는

「陵 앞에는 文人石 二軀 武人石 二軀를 左右에 세웠으나 지금은 破損이 심하여 破片만 남았거나 臺石만을 남기고 있다」(20)

라고 解說하였으나 어떠한 錯誤일 것이다. 이 陵의 墓儀石物은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後世에 變動이 있었으나 石人像은 처음부터 一雙이었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대하여는 뒤에서 다시 補充論及하겠다.

中國의 石人像은 後漢以來 唐末까지는 언제나 「石人 〇雙」으로 記錄되어 있고 「文武 〇雙」으로 區分한 例를 보지 못하였다.

그러한 文武石의 區別이 制度나 造形上으로 생기는 것은 北宋부터이다. 따라서 新羅에서도 그러한 區別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聖德王陵의 石人像을 一雙으로 推定하는 理由의 하나는 여기에 있다. 이 陵에 남아 있는 石人은 모두가 破損되어 現在 西便에 있는 것은

頭部 뿐이고 東便에 세워진 것도 頭部가 切斷된 것을 補修한 것이나 比較的 原形을 維持하고 있다.

이것을 從前에 文武石人 一雙 또는 文武石人 二雙으로 推定하여 東便

의 完全한 것은 文人石 西便의 頭部만 남은 것은 武人石으로 불려 왔던 것이다.

그런데 東便의 所謂 文人石은 冠을 쓰고 몸의 正面 中央에 長劍을 세우고 두손을 모아 칼자루를 잡은 典型的인 冠劍石人型이다.

劍은 長袍의 긴 옷소매에 가려져 길으로는 칼 끝이 발뿌리에 조금 보이고 또 가슴에 칼자루 끝이若干 보일 뿐이다.

이 石人像을 正面하여 보면 拱手執笏한 文官像으로 보기 꼭 알맞는 形狀이다. (圖7)

그러나 石像의 背面을 살펴보면 두터운 袍 밑에 甲衣를 입은 着衣狀態가 뚜렷하며 그 甲衣는 質感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刻明하게 彫刻되어 있다(圖8).

이 갑옷은 鐵甲이 아니고 皮甲이나 布甲으로 보이는 데 가족이나 배로 만든 고리를 連結하여 編物같이 짠 것이다.

이러한 짜임새로 봐서는 文獻에 보이는 環鎖鎧, 鎖子甲 같은 것을聯想케 한다.

唐 六典 武庫令에 의하면 唐代의 甲에 다음과 같은 十三種이 있고

○明光甲 ○光要甲 ○細鱗甲 ○山文甲

○烏鎚甲 白布甲 皂絹甲 布背甲 步兵甲 皮甲 鎖子

甲 馬甲(○印筆者)

六典의 注에 ○印의 六種은 모두 鐵甲이고 其外는 所要에 따른 이름이라 하였다. 名稱만으로는 무어라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나 구태여 이 가운데서 고른다면 布背甲 같은 것이 여기에 該當하는 것일까? 筆者로서는 이 以上 더 穿鑿할 길이 없으나 어쨌든 安으로 갑옷을 입고 長劍을 짊어 武裝을 갖춘 狀態임을 分明하다. (2)

그러면서도 길으로는 冠을 쓰고 戰袍가 아닌 長袍를 입었다.

冠에 대하여도 舊唐書 輿服志나 新唐書 車服志에 文武官의 各種 冠을 列擧하였는데 이것 역시 名稱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나 이러한 形狀의 冠은 文武官이 服用하는 冠이 아닌상 싶다.

龍門石窟 賓陽洞 外壁의 金剛力士가 이와 같은 짧은 筒形의 三面冠을 쓰고 있는데 新唐書에

「却非冠者 亭長門僕之服也」로 보이는 亭長 衛去階級の 服用한 冠이 아닐까 싶으나 形狀에 대한 說明이 없으니 무어라 말할 수 없다. 이 方面에 밝으신 분들의 敎示를 기다리고자 한다.

이와 같이 聖德王陵의 石人은 外形은 文官式의 長袍 밑에 布背甲을 입고 長劍을 집은 形狀을 하였다.

完全한 武裝도 아니고 그렇다고 文官의 服色이라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形色은 衙門의 衛士나 陵墓의 守護라는 石人의 本義를具象한 것이라 하겠다.

筆者는 이와 같은 石人像을 「冠劍衛士型」 또는 「衛士型」으로 假稱하였다.

東便의 石人(從來에 文官石이라고 한)이 이와 같은 樣式의 石人像이라 한다면 西便 西人을 武人像으로 推測하여 文武石像 一雙이니 二雙이니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西便의 石人像은 上半身 뿐인데다가 머리의 一部分도 破損되어 冠을 썼던 것인지 頭巾을 썼던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狀態이다.

그러나 以下 가슴 一部分에 남아있는 衣帶나 衣文으로 보아서도 東便 石人과 같은 長袍 차림의 石人像일 것으로 보인다(圖9).

따라서 石人像에 限하여는 聖德王陵은 唐 陵墓의 그것과 같은 樣式의 「冠劍型衛士像」이고 또 그 數도 二雙이 아닌 一雙이었다고 推定한다.

元 聖王陵(掛陵)의 石人

元 聖王陵에서는 聖德王陵에서 본 傳統樣式의 「冠劍衛士型」 石像 一雙 以外에 胡人의 모습으로 造形된 石人像 一雙을 追加하여 二雙의 石人을 對立한 新樣式이 나타난다.

이 陵의 衛士型 石人 一雙은 從前에 文官(人)石으로 부르던 것인데 이것은 一見 聖德王陵의 石人을 본 뜬 彫像임을 알 수 있다.

그 크기가 약간 커진 것과 背後 甲衣의 彫法이 粗略한 것 以外에는 外



圖 1 梁蕭秀墓の石獅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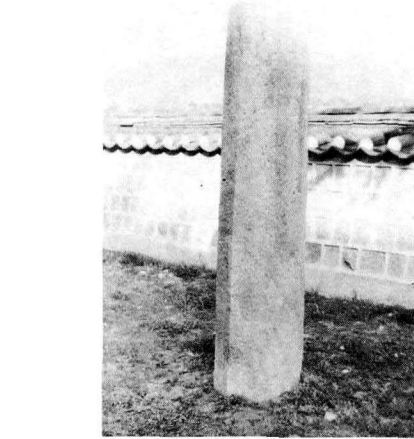


圖 3 石床 景德王陵



圖 4 華表石 元聖王陵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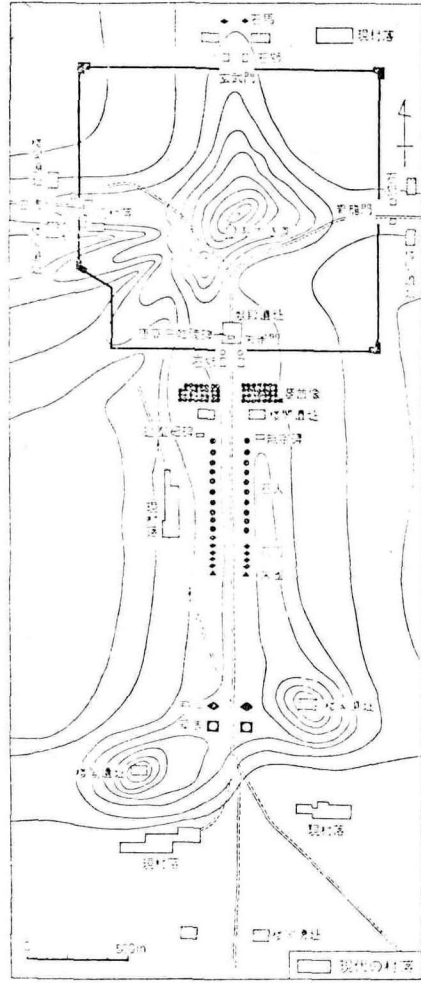


圖 2 唐高宗乾陵平面圖(一三)



圖 5 北魏靜陵の石人像



圖 6 唐高宗乾陵石人群



圖 7 聖德王陵石人像

形上으로 다른 것이 없다. 특히 西便의 石人은 聖德王陵의 石人和 얼굴까지 닮아서 한번 본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이다. 이 樣式의 石人을 맨 앞줄에 相對配列하였다는 것은 聖德王陵의 石人一雙이 同一型의 衛士像이었다는 反證도 되는 것이다. 다음 줄에 相對한 一雙의 石人이 胡人形의 武人石으로 通用되어 온 石人像이다.

이 石像을 자세히 살펴보면 胡人을 모델로 하여 彫刻한 것이 分明하나 全然 武裝을 하지 않았다.

窄袖의 平服 차림인데 이것이 所謂 胡服인지 當時의 新羅服인지 모르겠다.

허리에는 띠를 매고 소매를 아무렇게나 걸어올린 왼손으로 몽둥이 같은 것을 잡고 오른손은 주먹을 불끈 쥐고 가슴에 올린 姿勢이다(圖 10) 從前에 이것을 칼을 잡은 武人形으로 說明한 例가 많았으나 자세히 보면 칼이 아니고 一種의 杖이다.

길에는 唐草文 같은 것이 彫刻되었고 손잡이에는 큰 고리가 달린 武器로서 요즈음의 警棒같은 것이 아닐까? 아무리 봐도 劍은 아닌 것 같다.

머리에는 唐草文을 새긴 頭巾 같은 帽子를 썼는데 뒤로 빗어 넘긴 머리카락이 목에까지 늘어진 것 같기도 하고 帽子의 덮개가 달려 있는 것 같기도 보인다. 어쨌든 투구(鎧)는 아니고 덮개가 달린 帽子, 胡帽의 一種일지도 모르겠다(圖 11).

얼굴은 누가 봐도 異國人이다.

움푹 들어간 눈은 반쯤 감았고 큰 매부리 코에 길은 구레나룻 文字 그대로 碧眼紫髯의 西域人의 體臭까지도 풍기는 彫像이다.

어떻게 하여 이와 같은 石人像이 突然 여기에 나타난 것일까?

이만큼 胡人의 얼굴을 寫實으로 造形한다는 것은 實物을 보지 않고서는 不可能한 일이다.

新羅의 石工들이 唐나라에 갔다 왔거나 西域出身의 胡人이 直接 新羅

에까지 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當時 唐에는 많은 西域系 胡人들이 文武官으로 登用되고 軍隊의 傭兵으로 또는 一般 商人으로 進出하고 있었으니

使臣이나 商賈의 隨行으로 또는 流民으로 新羅에 來往한 胡人이 결코 적지 않았으리라 고 생각된다.

邊英燮氏는 西域人이 新羅에 入國하였을 可能性을 多角度로 檢討하였으나(22) 筆者는 이 石人像을 新羅에 流人한 西域系 兵卒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石人像은 冠劍型의 衛士像과 相應하는 武人石이 아니고 衛士에 따른 衛卒(兵)로 造形한 것이다.

그 配列에 있어서도 衛士型 石人과 對立하지 아니하고 다음 줄에 對立 配列한 것이다.

따라서 從來의 文人石 一雙 武人石 一雙이란 表現은 衛士石 一雙 衛卒(兵)石 一雙으로 區分하는 것이 正確한 表現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여 이와 같은 새로운 樣式을 試圖한 것일까?

唐의 墓儀制度도 들어온지 百年이 다 되어서 거기에 대한 理解가 깊어짐에 따라 石人의 本義를 新羅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으리라는 것도 理由의 하나로 생각된다.

그러나 移植된 外來 文化에만 滿足하지 못하고 自己의 것을 表現하려는 旺盛한 意慾과 好奇心으로 보는 西域人에 대한 好奇心 같은 것이 이러한 新奇한 造形을 試圖하는 原動力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싶다.

王陵에 대한 十二支神像의 壯嚴이 그렇고 石獸의 形制가 그렇고 石人의 경우 또한 그러하다.

이러한 意慾은 그 表現技法에도 잘 나타난다. 從來의 嚴格한 左右對稱의 正面觀과 요지부동의 姿勢에서 고개를 左右로 돌리고 허리를 살짝 든 動的 姿勢를 보이기 시작한다.

胡人의 容貌는 衛士型 石人과 같은 形式的인 彫法으로는 表現할 수 없

는 새로운 寫實 追求의 興味를 자극하였다.

그리하여 그 頭部의 表現에 格別한 努力이 集中된 것도 異邦人에 대한 新羅 工人들의 關心이 컸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얼굴에 비하면 그 밖의 部分의 表現에 약간 느슨한 점이 없지 않으나 新羅美術을 代表하는 彫刻 作品의 하나라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이 石人像과 나란히선 衛士型石人 一雙과는 모든 면에서 너무나 對照의이다.

中國의 傳統樣式과 新羅의 獨自樣式 形式과 寫實靜과 動 新羅文化의 保守的인 얼굴과 進取的인 얼굴이 여기에 나란히서 있는 것 같다.

興德王陵의 石人

이 王陵의 二雙의 石人像은 元聖王陵의 그것을 模範으로 한 것이 分明하다.

그 配列이나 造形에는 些少한 差異도 없고 다만 키가 若干 커졌을 뿐이다.

그러나 그 彫刻의 솜씨는 元聖王陵의 그것에 비하여 相當한 거리가 있다.

같은 九世紀初. 不過 三〇年을 前後한 作品이니 그것을 年代의 差異로 볼 수도 없고 創作과 模作의 差異라고나 할까 또는 作者의 個人差로 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以上 三陵의 新羅 石人像을 綜合 評價 한다면 聖德王陵은 唐 樣式的 延長線上에 있고 元聖王陵에 가서 新羅 工人들의 意慾이 「衛士型」 「胡人衛兵型」을 한雙으로 한 獨自樣式을 創造하여 新羅美術의 眞價를 發揮하였다.

興德王陵의 경우는 模範을 따르는데 汲汲하였으나 元聖王陵의 水準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위축된 作品이 되고 말았다.

五、石獸—石獅子

1、石獅子의 系譜

陵墓의 墓儀石獸에는 여러가지 動物이 있으나 新羅에서는 獅子 以外의 動物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新羅 墓儀의 石獸는 石獅子라 하여도 無妨한 것이다. 다른 動物像은 섞지 않고 石獅子 四軀를 墳壟의 四隅에 配列하는 것이 新羅에서만 볼 수 있는 特殊한 樣式이다.

唐의 경우는 一雙의 獅子를 陵前에 對立하는 것이 定式인데 어떻게 하여 이와 같은 差異가 생겼으며 또 그러한 特殊한 樣式은 어떠한 意味를 가진 것일까.

첫째로 陵寢의 規模와 制度가 다른 것도 理由의 하나라고 하겠으나 根本的으로 石獅子의 性格이 唐의 그것과는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獅子는 여러 種類의 石獸중에서도 가장 複雜한 屬性을 가진 石獸이다. 그러므로 新羅 石獸를 理解하자면 그 來歷과 性格부터 밝힐 必要가 있다.

獅子는 西域에서 中國에 들어 오면서 부터 百獸의 王으로 靈獸視되어 墓儀動物像으로 造形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印度에서 佛像의 臺座—獅子座—로 造形되어 佛과 더불어 中國에 傳하여 졌다.

이 兩系統의 獅子像이 漢民族의 固有思想과 佛教信仰을 背景으로 하여 서로 影響을 주고 받으면서 複雜한 過程을 거쳐서 하나는 墓儀石獸로 다른 하나는 佛教彫像으로 發展하여 온 것이다.

이러한 過程의 理解 없이는 新羅 石獅子의 實像을 把握하기가 어렵다. 그뿐 아니라 獅子像은 新羅以後의 우리 美術에 적지 않은 影響을 끼친 점에서도 注目되어야 할 對象이다.

이와 같이 그 來歷이 複雜하고 미친바 影響이 큰 獅子像의 全貌를 完

全히 解明한다는 것은 筆者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여기에서 本論考에 必要한 大綱만을 간추려 보기로 한다.

2、墓儀와 獅子

獅子는 元來 中國에는 없었던 動物이다. 後漢書 西域傳에 의하면 獅子는 後漢 章和元年(八七A·D) 安息國으로부터 中國에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때까지만 하여도 漢民族은 傳統的으로 猛虎를 「百獸의 王」으로 神聖視하였던 것이다.

漢代의 畫像石이나 畫像鏡에 보이는 神仙의 左右에 侍立하는 兩虎와 龍虎같은 圖像은 바로 이와 같은 思想에서 나온 造形이다.

그러다가 獅子를 처음으로 알게 되고 그 認識이 차츰 깊어짐에 따른 造形의 對象이 되기 시작하여 마침내 猛虎를 대신하는 靈獸가 되는 것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陵墓를 石獸로서 儀衛하는 風習은 後漢時代의 厚葬의 風에 따라 널리 퍼지게 되었고 그 風潮에 따라 石獅子는 차츰 墓儀 石獸로서 重要な 位置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二世紀末頃에는 이러한 獅子石像이 다른 墓儀石物과 같이 墓前に 세워졌던 記錄이 水經注 같은 文獻에 散見되고

그 遺物이 오늘에 傳存하는 例도 앞에서 列舉하였다. (23)

그중에서도 山東省 嘉祥縣 武氏祠의 石獅子는 建和元年(一四七)의 年代와 石工 孫宗의 이름까지 알려진 作品이다.

「머리는 크고 입을 벌리고 頸毛는 탐스럽게 제법 寫實的으로 表現되었다. 朋體는 크게 S字形的의 堂堂한 姿勢로 걷는 모습이다. 獅子라고는 하나 날개가 돋혀서 西亞藝術의 影響을 나타내고 있다」(24)

그밖의 例들은 嚴格한 意味에서 果然 獅子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疑心스럽고 더구나 宗資墓의 石獸는 彫像에 「天祿」「辟邪」라는 神獸名か

지 새겨져 있어서 作品 스스로가 性格을 明示하고 있듯이 이 時代의 石獅子는 이름이 獅子이지 本色은 神獸로 造形한 것이다.

當時의 大多數의 사람들은 아직 獅子의 實像을 모르고 그저 「猛虎보다 더 神靈스런 動物」 정도의 知識밖에 없었을 것이니 神鹿도 아니고 猛虎도 아니고 獅子도 아닌 異常한 石獸가 造形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獅子라는 새로운 素材에 漢民族 固有의 靈獸觀念이 投影되어 이러한 새로운 靈獸型이 造形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後漢의 이러한 靈獸形 石獅子의 傳統은 南北朝時代에 가서는 南朝에 繼承되어 各王朝의 陵墓를 儀飾하게 된다.

南京地方에서는 最近 새로운 遺物이 많이 出土되고 있다 하나 梁 蕭秀墓의 石獅子(五一八)가 가장 有名하다(圖一).

이것은 獅子라고 하기 보다는 巨大한 量과 힘을 誇示하는 巨石記念物이라 하는 것이 適切한 表現일것 같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漢民族의 獅子이다. 그들의 傳統的인 思想에 의하여 想化되고 靈獸化된 獅子의 모습이다.

이와 같은 靈獸形 獅子像이 佛教系 獅子像의 影響으로 차츰 變化하여 初唐에 들어와서 겨우 寫實的인 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잠시 佛教系統의 獅子像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겠다.

3、佛教彫像과 獅子

印度에서는 일찍부터 獅子의 彫像이 石柱의 柱頭に 彫刻되고 獅子座라는 佛像의 臺座樣式도 생기게 된다.

獅子座는 一名 貌座 또는 無畏座라고도 하여 佛陀 또는 大德 所坐의 狀座로서 一切外道를 降伏시키는 뜻을 가진 臺座라고 하였다.

간다라地方이나 마투라地方의 初期 佛像에는 이미 獅子座의 臺座樣式이 成立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中國에 들어온 佛教系의 獅子는 산

動物이 아니고 이러한 臺座의 一部로 造形된 獅子像이었던 것이다.

여기에 墓儀石獅子의 경우와 根本的으로 다른 점이 있다.

墓儀石獅子는 實在의 獅子를 그들 漢民族 固有의 思想과 感覺으로 造形한 獅子像이고 佛敎의 獅子는 처음부터 敎理에 따라 定型化된 彫像이었던 것이다.

水野清一教授는

「三世紀에(中國에) 나타난 간다라式的 佛坐像은 차츰 定型化 中國化하였다. 그리하여 四世紀에서 五世紀 初頭에 流行한 所謂 古式佛의 坐像을 남기게 된 것이다. 이것은 階段式의 衣文으로 되고 面貌도 달라졌다. 그러나 여기에 반드시 左右에 獅子를 갖춘 獅子座를 보게 된다. 간다라의 傳統이 아직까지 強하다고 할 수 있다」(25)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臺座樣式은 五—六世紀까지 계속되면서 各處 石窟에 많은 例를 남겼는데 獨尊像이건 三尊像이건 佛像의 左右에 獅子를 彫刻하는 것이 六朝佛像의 通例가 되었다.

이 獅子座의 樣式이 六世紀를 前後한 時期부터 조금씩 變化를 보이게 된다.

寶座에 대하여 獅子의 位置가 차츰 移動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臺座의 下段이나 左右 귀퉁이에서 本尊佛을 받드는 形式이 보통이었는데 龍門石窟 寶陽洞(五〇五—五二二)에서는 寶座前 한층 낮은 佛壇 위 左右에서 侍衛하는 獨立獅子像을 볼 수 있게 된다.

또 寶座 아래의 佛壇 中央에 傳山爐形의 香爐를 中心하여 一雙의 獅子가 左右에 蹲踞한 形式도 많이 보이게 된다.

이것 亦是 獅子가 臺座에서 떠나온 짐에서는 하나의 變化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樣式의 起源은 相當히 오래된 것으로 생각된다.

獅子와 香爐 獅子와 불(火)이 結合된 造形은 統一新羅以後 石燈 香爐 燈臺臺 등의 造形에 盛行하여 우리 美術 工藝에 큰 影響을 주게 되는 것이다.

어쨌든 獅子가 臺座를 벗어나서 獨立 彫像이 되어 佛像의 前方 左右에서 蹲踞侍衛하는 樣式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樣式의 原形은 漢代의 畫象鏡이나 墓儀石獅子에 있다고 볼 것이다.(26)

이러한 樣式의 獅子像을 「蹲踞侍衛型」으로 假稱하기로 한다.

一旦 臺座에서 벗어나 獨立彫像으로 成長한 獅子는 차츰 寫實的인 모습을 갖추게 되면서 처음으로 自體의 臺座를 가지게 되고 또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臺座라 하여도 보잘것없는 長方形의 狀臺에 不過하지만 獅子像에 있어서는 性格上으로나 造形上으로 큰 意義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六一七世紀의 獅子像은 寶座의 周圍뿐 아니라 石窟(佛殿)全體의 守護로서 石窟의 門內 兩側이나 門外 左右에 一雙으로 짝지워 버티고 서게 되는 것이다.

龍門 獅子洞(六七〇—六七五)의 石獅子는 洞口의 內側 左右에 버티고 선 그 雄壯한 모습으로 하여 이 洞窟의 이름까지도 獅子洞으로 불리게 되었다.(27) 같은 時期의 萬佛洞에서는 石獅子가 完全히 石窟을 벗어나서 바깥 洞口 左右에서 石窟의 門戶를 守護하고 있다.

이 獅子는 龍門石窟의 어느 獅子보다도 寫實的이고 力動的인 모습으로 가슴을 딱 펴고 바깥쪽 앞발로 주먹을 쥐고 外敵에 一擊을 加하려는 態勢의 獅子像이다.(28)

佛門守護의 氣象과 寫實的인 彫法을 아울러 보여주는 獅子像이다.

이제 臺座의 獅子가 佛像의 侍衛에서 佛門守護의 獅子가 된 것인데 이러한 樣式의 獅子는 「佛門守護型」의 獅子 所謂 「門獅」樣式이라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에 佛門에는 이미 仁王—金剛力士—이 守門將으로 버티고 있었던 것이나 이러한 狀況에서 獅子는 守門의 象徴이나 佛門의 壯嚴의 存在가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同時에 佛舍利를 奉安한 塔婆의 門戶에도 仁王과 石獅子를 壯嚴하는 것이 一般化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七世紀項까지는石獅子가堂塔壯嚴의「門師」로서陵墓의門獅와 거의 같은性格을 띠게 되면서外形上으로도差異가 없는同一樣式으로造形되었던 것이다.

결국 처음부터 하나의佛敎造像으로中國에 들어온獅子像은漢文化의巨大한도가니 안에서融和되어「蹲踞侍衛型」으로 또「佛門守護型」을變하여 마침내「堂塔壯嚴型」—門獅樣式—으로中國化된 것이다.

4、韓國初期佛像과 師子像

앞에서佛像臺座의獅子像이六七世紀項에는慕儀石獅子와 같은性格의門獅樣式으로造形되는過程을살펴보았다.

이兩系統의獅子像중에서韓半島에먼저傳來한것은佛敎系의獅子像이었다.

三國時代의初期佛像中獅子座의遺例는서울특별시出土金銅如來坐像하나뿐이다(圖12).

이佛像의臺座는方形狀座의前面兩側に머리를수그리고앉은雙獅子의正面像을渾彫한아주素朴한樣式으로되어있다.

이佛像은五世紀初의中國作品으로推定하면서도高句麗百濟어느쪽의것이아하는데는異論이있으나어쨌든이러한高古한獅子座의佛像이이땅에서出土되었다는사실이重要な것이다.

우리나라初期佛像에는蓮華臺座의金銅像이많은데臺座가蓮華座로移行하는것과獅子像이臺座를벗어나서蹲踞侍衛型의獨立像으로변하는것과는깊은關係가있다고본다.

이밖에百濟의初期佛像중에는小形의石像이나金銅像이있으나여기에서는獅子像이사라지고두꺼운衣文이臺座를덮은所謂裳懸座樣式으로된것들이다.

그러나우리나라에도初期에는獅子座樣式이들어왔고또造形되었으리라하는것은특히出土金銅佛像이中國의傳來品이건또는그複製品

이건간에그러한사실의證明으로는充分하다하겠다.
또年代는좀떨어지는七世紀의作品이지만百濟의故地忠南燕岐地方에서發見된左記碑像들에도獅子座의傳統을繼承한彫像들이세겨서있다.

癸酉銘 全氏阿彌陀三尊石像(文武王一三年·六七三)

本尊을向하여佛壇左右에서佇立侍衛하는雙師子像

己丑銘 阿彌陀如來. 諸佛菩薩石像(神文王九年·六八九)

有基蓮華臺座上의本尊을向하여佛壇左右에서蹲踞侍衛하는雙師子像

蓮華寺 七尊石像(七世紀末)

有基蓮華臺座上의本尊左右에前面을向하여蹲踞侍衛하는雙獅子像

5、新羅石塔과 四師子

新羅에는獅子座나佛像을侍衛하는「蹲踞侍衛型」의候階를지나서「堂塔壯嚴型」의師子像이들어온것으로보인다.

慶州神印寺(塔谷)四方佛塔像앞에세겨진咆哮奔走形의雙師子는本尊을侍衛하는것으로도 보이고塔을壯嚴하는것으로도보이나어쨌든七世紀의獅子像으로는芬皇寺石獅子像과더불어가장高古한遺例이다(圖13).

芬皇寺塔과 石獅子

芬皇寺에傳存한石獅子는다음의三雙인데現在基壇의四隅에安置된二雙은芬皇寺塔創建當時(善德王三年六三四)의作品으로생각되나國立慶州博物館의正面候階의兩側に移置한一雙은年代가八世紀後半으로내려간것이다.

位置	像高	臺座	型式
A 塔基壇 西南	一一七 cm	七七×九九×一四 cm	蹲踞型
A' " 西北	一一六 "	六八×九六 "	"

B	東南	九五〃	破損	脆伏型
B'	東北	(八八)〃	破損	〃
C	博物館北	不等八角型(二候)	蹲踞型	
C'	南	不等八角型	〃	

慶州博物館의 石獅子 一雙(C,C')는 古蹟國譜 卷三(圖版九八八·九八九) 芬皇寺塔의 「修築前 東南方에 있던 것」으로 明示 收錄되어 있고 一九一二年 修築前의 調査에도

「寺의 境內에 또(四獅子 以外의 뜻) 石獅子 二 石燈基 石柱礎 若干이 있다. 다 當代의 遺品으로 初期의 手法이 不單하다」(29)

中村亮平氏는

「重修以前에는 六基의 石獅子 周邊에 散하던 것을 二基는 慶州分館에 가져가고 四基는 四隅의 基壇上에 配置한 것이다」(30)

라고 博物館 移置와 現位置에 配置한 經緯를 밝히고 있다.

塔基壇上의 四獅子에 대하여는 「門扉의 仁王像과 같이 塔 創造 當時의 優秀한 作品이다」 정도의 說明 밖에 아직껏 보지 못하였으나 이 四獅子像은 아주 對照的인 二雙으로 여러가지 問題를 안고 있다.

① 西便의 二軀(AA)는 同一石長方形의 臺石 위에 앞발로 버티고 선 蹲軀形인데 대하여 東便의 二軀(B'B') 前肢部가 破損되었으나 같은 形의 臺座 위에 옹크리고 앉은 脆伏形으로 彫刻되었다.

② AA는 正面에서 보면 石柱같은 前肢를 過大한 앞가슴에 붙인 것 같아서 體軀의 均衡과 같기의 表現에 어색한 部分도 없지 않으나 側面의 寫實的 表現에는 비교적 무난한 솜씨를 보여 주고 있다.

顔面의 表情이나 四肢에는 氣魄과 生動感이 넘쳐 흐르고 全身의 體毛 하나 하나 까지 새겨서 獅子의 皮膚나 體溫까지도 느끼게 하는 彫像이다 (圖 14).

③ 圖脆伏形의 石獅子는 姿勢에서부터 힘이나 迫力보다 柔軟한 生體를 느끼게 하는 造形이다. 머리와 꼬리에서 겨우 獅子임을 알 수 있는

나 얼핏 봐서는 물개같은 부드러운 曲線을 느끼게 한다. 體毛같은 細部의 表現을 省略되었으나 全體的인 부드러운 質感을 내는 데는 역시 成功한 作品이라 할 수 있다(圖 15).

④ 이와 같이 對照的인 形態와 手法으로 造形된 二種類의 獅子像이 元來 어떠한 組合으로 짝을 이룬 것이냐가 問題이다. 즉 A×A B×B' 가 한 쌍이냐 또는 A×B A×B' 가 한 쌍이냐에 따라 塔에 대한 石獅子의 配置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現在의 配置狀態는 크게 參考가 되지 않는다. 元來의 基壇樣式 自體가 現在와 같은 것이었는지 아닌지 조차 分明하지 않기 때문이다.

筆者는 南山 塔谷의 獅子像과 이 보다는 年代가 좀 내려가지만 慶州博物館으로 옮겨간 石獅子(C,C') 다 같이 雌雄의 雙獅子樣式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芬皇寺의 獅子도 A×B型 즉 雌雄의 雙獅子 二雙으로 보고 싶다(圖 16, 17).

이와 같이 初期의 石獅子는 雌雄의 特徵이 뚜렷한 모습으로 造形된 것 같다.

芬皇寺의 雌雄 같이 얼핏 보기에 물개에 가까운 모습의 雌雄形 雙獅子의 樣式은 뒤로 義城 觀德洞 三層石塔의 兒獅哺乳形 獅子像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雙獅子樣式이 果然 雌雄形인지? 그렇다면 雌雄의 形態는 中國 南朝系의 靈獸形獅子와는 關聯이 없는 것인지 또 日本 獅子의 二類型 「唐獅子型」 「狛犬型」(고마이누)에 대한 影響의 與否등 今後 究明해야 할 問題들이 적지 않다.

끝으로 石獅子와 芬皇寺塔과의 關係位置는 基壇의 原形을 알 수 없는 現在로서는 무어라 斷定하기 어려운 問題이다.

즉 現在와 같이 基壇의 四隅에 配置한 것인지 아니면 門扉 앞에 一雙 石獅子形式으로 配置한 것인지를 推定할만한 直接資料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 八世紀 以後에 佛國寺 多寶塔의 四獅子나 義城 觀德洞 三層石塔의 四獅子 華嚴寺 四獅子塔樣式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芬皇寺



圖 8 圖 7의 背面



圖 9 聖德王陵石人像(西)



圖 10 元聖王陵石人像



圖 11 圖 10의 背面



圖 12 서울 篤岫出土佛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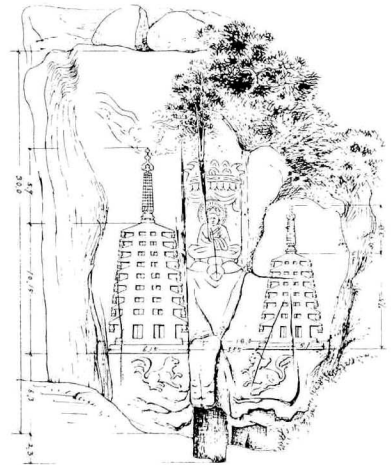


圖 13 慶州 神印寺四方佛前 双獅子像



圖 14 芬皇寺石獅子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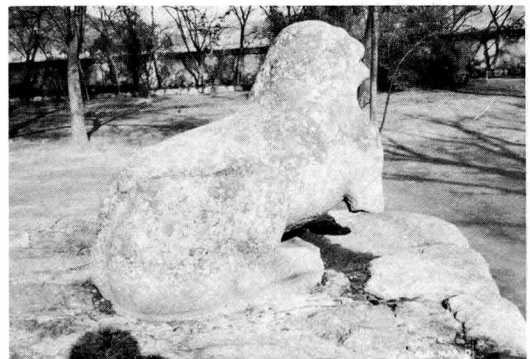


圖 15 芬皇寺 石獅子像

塔에서부터 多寶塔 사이의 一〇〇年 동안에 四獅子를 塔의 四方에 配置하는 壯嚴樣式이 成立되었다고 推測할 수 있다.

多寶塔의 四獅子

佛國寺 多寶塔의 基壇 위에는 一九〇二年까지도 四獅子가 安置되어 있었으나 一九〇九年에는 그중 二軀가 日本으로 搬出되었고(註) 그 뒤에 또 一軀가 亡失되고 現在 一軀만이 남아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獅子像은 蓮華臺石(徑五四cm 高一八cm 八瓣의 仰蓮莖石)과 同一石으로 彫刻한 蹲踞型 獅子像(獅子高 五五cm 全高七三cm)인데 基本的으로 芬皇寺 A型과 같은 形에 屬한다.

그러나 이 獅子像은 優麗한 蓮華臺座와 瓔珞이 달린 頸飾등을 갖추어서 질은 裝飾性을 나타내고 있다.

芬皇寺의 石獅子가 一〇〇年 동안에 이와같이 汗층 洗練되고 美化된 모습을 보이게 되었으나 그 雄渾한 迫力은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完全히 石塔의 裝嚴用으로 造形된 石獅子像이다(圖 18·19)。

臺座는 現在의 伏蓮形 下臺石이 後補이므로 그 原形을 알 수 없으나 元來는 中臺石이나 下臺石 같은 下層臺石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石獅子의 現位置나 一九〇二年 當時에 配置되어 있었다는 基壇의 四隅는 勿論 原位置일 수 없다.

多寶塔의 基壇上에는 넓이 五七cm의 空間 밖에 없으니 이 獅子像을 安置하기에는 充分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이 石獅子는 基壇에서 地上으로 내려와서 塔의 周圍에 安置되었던 것이 거기에 相當하는 下臺石이 있었을 것으로 推測된다.

新羅의 塔이 차츰 石塔의 典型樣式으로 移行함에 따라 지금까지 基壇 위에 있었다고 推測되는 石獅子는 必然的으로 자리를 옮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地上으로 내려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石塔의 中心部로 들어가서 塔身을 支撐하는 구실을 맡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四獅子塔이라는 놀라운 新樣式이 成立되는 것이나 이러한 發想은 이미 塔婆壯嚴의 四獅子樣式에서 싹튼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이때에 地上으로 내려가서 塔을 壯嚴한 四獅子樣式이 곧 陵墓의 四獅子樣式에 反映되고 또 羅末에 가서는 僧侶의 墓塔이나 石燈의 下臺石을 壯嚴하는 獅子로서 크게 流行하는 것이다.

佛像 台座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때 蓮華台座의 盛行으로 台座의 表面에서 잠시 자취를 감췄던 獅子像이 이때에 다시 台座 下臺石을 壯嚴하는 素材로 再登場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興味로운 現象이라 아니할 수 없다.

多寶塔의 四獅子은 그러한 흐름속의 過渡期的인 樣式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6. 新羅王陵과 石獅子

新羅의 王陵중에서 맨먼저 墓儀石物을 完備한 것이 聖德王陵이며 또 그 時期는 여기에 陵碑를 세운 景德王 一三年(七五四)頃으로 보는데 대하여는 별로 異論이 없을 것이다.

이때에 從來의 外護石에다가 圓刻의 十二支神像을 追加 設置하고 그 위에 墓儀石物을 配列하여 現在와 같은 王陵標式을 完成하게 된 것이다 景德王은 諸般制度和 地名까지도 中國式으로 개편하였으니 陵墓制度인들 여기에 例外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唐의 帝陵에 다음가는 格式의 墓儀石物을 父王의 陵에 造營하였고 同時에 十二支神像의 壯嚴도 追加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때의 墓儀制度는 唐의 形制에 따랐음이 分明하나 獨特한 外護壯嚴樣式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이것은 新羅 陵墓制度의 큰 수수께끼의

하나이다.

筆者는 이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의 하나가 바로 이 石獅子樣式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唐의 墓儀制度에 의하면 石獅子는 陵寢 南門의 門獅子로서 神道の 最前方에 一雙을 對立하는 것이 定式으로 되어 있다.

여러 石獸 중에서도 石獅子는 別格의 神獸로서 「陵」이 아니면 세울 수 없는 石物이었고 적어도 唐代에는 例外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唐制를 忠實히 따른 聖德王陵의 墳壘 四方에 石獅子를 配列한 것은 어떠한 理由일까?

筆者는 이 墓儀 石獅子가 이때에 이미 一般化되어 있었던 塔의 四獅子樣式과 混合 擴大된 것으로 解釋하고 싶다. 즉 石獅子는 唐의 墓儀制度와 新羅의 石塔 裝嚴樣式을 兼한 石物이다.

王陵을 舍利를 奉安한 塔姿와 같이 神聖視하고 塔에 準하여 十二支神像으로 壯嚴하고 그 四方에 墓儀 石獅子를 配置한 것이다.

新羅의 佛敎는 國運加護의 宗教로서 國王은 信佛의 儀表이며 政治와 佛敎의 主宰者였다. 그러므로 「王即佛」의 信仰에서 이와 같은 壯嚴樣式이 생긴 것으로 본다.

王陵에 이와 같은 壯嚴을 施設하게 된 背景에는 孝誠의 發露라던가 王權의 誇示라는 뜻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根本의 으로는 新羅人들의 王陵에 대한 意識에서 이와 같은 發想이 우러나온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勿論 이와 같은 陵墓樣式이 景德王代에 突然히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고 여기에 先行하는 어떠한 過程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뜻에서 文武王의 葬地에 造營된 陵地塔(陵之塔)과 이 時代 石塔의 十二支神像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깊은 研究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여기서 是私見을 提示하는데 그치고자 한다.

결국 以上の 要旨는 王陵을 塔과 같이 壯嚴하고 거기에 墓儀 石物을 設置하면서 塔의 四獅子樣式을 吸收하여 獨特한 陵墓樣式이 成立되었으

리라는 것이 筆者의 見解이다.

그렇다면 元聖王陵(掛陵)과 같이 二雙의 石獅子를 神道の 맨 앞에 對立한 樣式은 또 어떻게 說明되어야 할 것인가?

筆者는 이 二雙의 石獅子는 現在와 같은 配列이 原狀을 그대로 維持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이 四軀의 石獅子들은 다른 石物의 配置가 整然한데 비하여 相互間의 거리 간격이 고르지 않아서 그동안에 移動된 흔적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王陵의 形制를 忠實히 본받은 興德王陵에도 石獅子가 墳壘의 四方에 配置되어 있다. 이것을 미루어 보더라도 興德王陵 造營時까지는 元聖王陵의 石獅子도 四方에 配置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 뒤에 어떤

事情으로 現在와 같이 옮긴 것으로 짐작된다.

또 이와 같이 二雙의 石獅子를 神道 兩側에 對立한 것은 石人 二雙을 對立한 것과도 어떠한 關聯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石獅子 一覽表

陵名	位置	頭向	體高	台座	特徵
聖德王陵	東南	正面	一〇〇 cm	六七×一〇〇×一八 cm	頸飾 顔面損傷
	東北	〃	九七〃	六二×一〇八×一八〃	
	西南	正面 (半左?)	一〇六〃	七一×九三×二二〃	
元聖王陵 (掛陵)	東南	左向	一三〇〃	八〇×一〇二×二〇〃	躍動準備態勢
	東後	正面	一三二〃	七七×一〇二×二二〃	
	西前	正面	一三九〃	八二×一〇五×?〃	
興德王陵	東南	正面	一五〇〃	七八×一一〇×?〃	四花文과 瓔珞頸飾
	東北	左向	一三七〃	八五×一〇五×?〃	
	西南	左向	一三〇〃	八四×一〇〇×?〃	
	西北	右向	一三二〃	埋沒	瓔珞頸飾

※ 元聖王陵의 位置(前後)는 墳壘쪽에서 본 것



圖 16 慶州博物館雙獅子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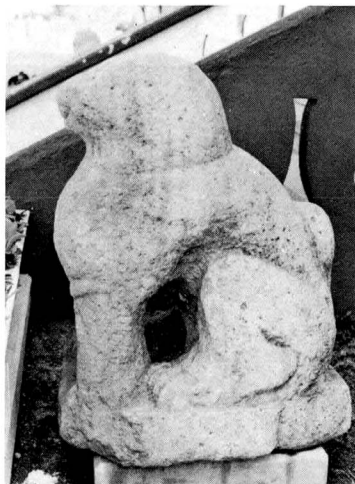


圖 17 慶州博物館雙獅子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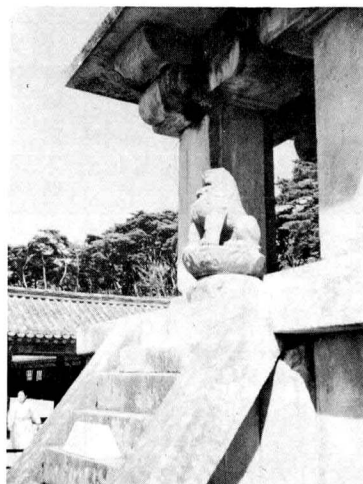


圖 18 佛國寺多寶塔의 石獅子像



圖 19 佛國寺多寶塔의 石獅子像



圖 20 聖德王陵石獅子像(西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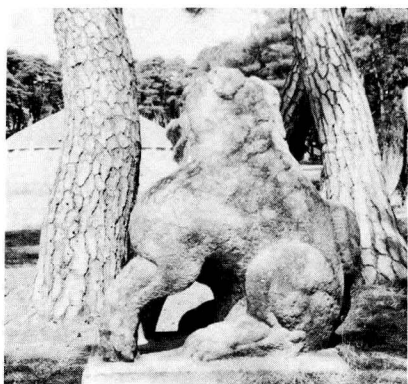


圖 21 元聖王陵石獅子像(東前)



圖 22 元聖王陵石獅子像(東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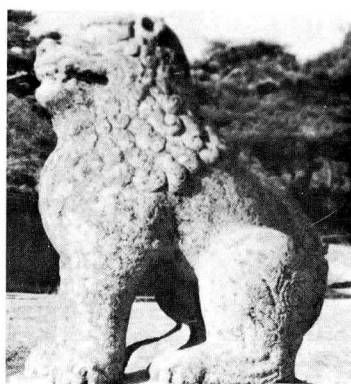


圖 23 興德王陵石獅子像(東南)

마지막으로 各王陵의 石獅子를 前記 一覽表에 의하여 比較 考察해 보기로 한다.

그 造形上의 檢討는 이미 邊英燮氏에 의하여 個別的으로 所상하게 되어 있으므로(32) 여기에서는 全般的인 特徵만을 가려 보기로 한다.

墓儀石獅子像의 特徵으로 가장 注目되는 것은 芬皇寺 石獅子와 같은 雙獅子樣式(所謂 雌雄形)이 아니고 四獅子가 모두 同一形의 蹲踞侍衛型으로 單一化된 점이다.(33)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同一形으로 보이는 獅子像에도 두 類型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갈기가 圖式的인 卷毛形으로 뚜렷하게 表現된 것과 부드럽게 흘러 내린 것도 입을 벌린 것과 다문것으로 區別되는 데 이것은 俗說대로 雌雄을 表現한 것인지 또는 密敎의 影響으로 仁王像같이 阿吽形으로 造形한 結果인지 잘 모르겠다.(34)

石獅子의 裝身具로는 頸飾이 聖德王陵에서부터 나타나고 元聖王陵에서는 뚜렷하지 않으나 興德王陵의 石獅子는 四花文裝飾과 瓔珞을 단 頸飾을 걸고 있다.

이 兩陵의 石獅子 중에서 墳壟의 北쪽에 있는 二軀에서만 목걸이를 볼 수 있다.

造形上으로 본다면 聖德王陵의 石獅子는 芬皇寺의 石獅子樣式을 그대로 踏襲한 것이며 이것이 뒤로 元聖王陵 興德王陵에까지 一貫하여 墓儀石獅子의 典型을 이루게 된다.

元聖王陵에서는 從來의 左右對稱形과 不動의 姿勢를 벗어나서 高개를 左右로 돌리고 앞발을 버티고 뛰어 나오려는 生動하는 獅子를 造形하여 뛰어난 솜씨를 보였다.

興德王陵의 石獅子는 元聖王陵을 본 받았으나 그 水準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萎縮된 느낌이 있다. 그중에서도 東南의 獅子像은 모든 石獅子 중에서 特別히 偉大하고 彫形의 솜씨도 非凡하다.

以上 三陵의 石獅子 配列은 各陵마다 若干의 異同이 있으나 正確하게

原形을 維持하고 있는 것은 興德王陵 뿐이다.

興德王陵의 四獅子는 東南 辰巳間 七M(十二支神像護石에서) 西南 午未間 六·七M 西北間 三·三M 東北間 三·三M에 位置하여 北쪽으로는 直徑 三·三M 南쪽으로는 그 二倍거리의 同心圓上에 整然하게 配列한 것임을 알 수 있다.

六、結 論

지금까지 墓儀石物에 대하여 石人 石獸를 中心으로 살펴본 것을 要約하여 結論으로 삼고자 한다.

墓儀石物의 背景

新羅의 墓儀石物은 限定된 時期에 集中的으로 나타난 것을 그 特徵의 하나로 들 수 있다. 太宗 武烈王陵의 陵碑를 嚆矢로 하여 聖德王 景德王까지의 約一〇〇年間과 元聖王에서 憲德王 興德王까지 九世紀初의 約五〇年間이다.

聖德王陵 以前에도 文武王의 陵地塔 神文王陵까지 여기에 包含시킬 수 있을 것이나(35) 어쨌든 이 一〇〇年間은 武烈王系의 八王이 在位하여 新羅가 가장 安定되고 繁榮을 누렸던 時代이다.

뒤의 五〇年間은 惠恭王으로서 武烈王系가 斷絶된 뒤로 奈勿王系가 王位를 繼承하여 多少紛爭은 있었으나 元聖王 憲德王 興德王까지 비교적 小康狀態를 維持한 時期이다.

元來 陵墓는 그 後繼者에 의하여 造營되는 것이 原則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葬禮後에 二次的인 造營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墓儀石物의 設置가 몇 代를 지나서 完成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聖德王 陵碑가 死後 一八년이 지난 景德一三年에 完成된 것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또 때로는 끝끝내 完成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니 十二支神像의 外護壯嚴만은 施設하고 墓儀石物을 갖추지

못한 陵墓들이 그것이다.

따라서 墓儀가 完備된 王陵은 王權이 가장 安定된 時期에 나타난다. 실제로 墓儀를 갖춘 王陵과 後繼 王位의 繼承關係를 살펴 보면 모두 王直系子孫이거나 兄弟間으로 王統이 平和裡에 繼承된 政治環境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興德王陵의 경우는 王이 即位한 直後에 棄世한 王妃를 위하여 造營한 陵에 王 스스로 合葬된 것이니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

墓儀와 身分關係

앞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新羅의 墓儀制度는 唐의 陵(帝陵以外에 號稱 皇族의 陵)에 準하여 王陵에만 石物을 設置한 것이다. 그러나 石人이나 石獸는 唐의 規模를 넘어서 新羅 獨自의 樣式으로 造形한 것이 特殊하다.

그것은 十二支碑像의 壯嚴樣式과 不可分의 關係에서 생긴 樣式으로 보여진다.

즉 墓儀制度에 앞선 石塔의 四獅子樣式과 墓儀石獸의 習合에서 우려나온 것이다. 新羅 사람들이 王陵을 塔과 같이 神聖視한 意識에서 이와 같은 習合現象이 自然스럽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墓儀制度라는 側面에서 본다면 十二支神像의 外護壯嚴만을 施設한 陵墓도 역시 王陵이거나 王陵格의 陵墓로 생각된다.

塔과 같은 靈場으로 생각하였기에 四獅子를 配列한 것이고 또 十二支神像으로 壯嚴하게 되었을 것이다.

姜友邦氏는 十二支像을 壯嚴하게 된 背景을

「그 당시 有力한 貴族陵에도 王陵과 같은 大規模의 石物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十二支像을 彫刻하여 護石으로 들렸을 가능성은 짙은 것이다. 王과 貴族의 勢力 均衡속에서 貴族들 또한 大規模의 願利 및 佛像 塔婆 등을 建立한 것을 비롯하여 貴族陵에도 十二支像을 들렸을 것은 明白하다」(36)

라고 하여 專制王權의 強化나 有力한 貴族의 勢力誇示로 說明하였으나 筆者로서는 그보다도 新羅사람들의 王陵에 대한 信仰의 造形的 表現이라고 생각한다.

十二支神像을 壯嚴한 것을 모두 王陵으로 본다면 金庾信墓는 그가 興武大王으로 追封된 興德王代에 「陵」으로 改修한 것으로 되어야 하고 또 月城郡 見谷面、五柳里의 傳眞德王陵이나 方形墳도 王陵格의 陵墓로 推定되어야 할 것이다.(37)

이 問題는 十二支護石의 發生過程과도 關聯하여 多角度의 研究에 의하여 綜合적으로 解明되어야 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筆者의 所見을 提示하는데 끝치기로 한다.

또 이번에는 論及하지 못하였으나 十二支像의 彫刻樣式을 從前에 一律의 基準으로 評價하여 年代의 先後를 가리키는 것은 再考되어야 할 것 같다. 十二支像의 浮彫에는 두 렷이 두 가지 方式이 보이는데 하나는 보통의 浮彫(Relief)이고 또 하나는 所謂 「隱起法」이라고 하는 方式으로 새겨진 것이다.

十二支神像의 研究에도 이 두가지의 彫刻樣式을 念頭に 두고 再檢討할 必要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石人·石獸

一雙 또는 二雙의 石人은 文(官)石武(官)石이 아니고 冠劍型의 「衛士石」을 對立한 것인데 여기에 胡人形의 衛卒(兵)一雙을 添加한 것은 新羅의 獨特한 意匠이다.

여기에는 新羅가 外來文化를 受容하되 거기에 滿足하지 않고 그것을 凌駕하는 境地를 追求한 新羅文化의 眞面目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石獸 즉 石獅子는 新羅末 以後로 우리 美術에 至大한 影響을 끼치게 된다. 여기에 대하여는 앞으로 檢討할 機會가 있기를 기대한다.

註

① 齊藤忠 新羅一統時代の墓制概觀―朝鮮古代文化の研究―所收

② 創元社 考古學辭典 廳州の遺跡(有光)

③ 有光教一 十二支生肖の彫刻を續うした新羅の墳墓 青丘學叢二五輯

④ 中村亮平 朝鮮慶州の美術 興德王陵項 改造社 一九四〇年

⑤ 邊英燮 掛陵考 梨大史苑 一九七五年

⑥ 秦弘燮 石造建築物의 獅子의 用例 藝術院 論文集 七輯 一九六八年

⑦ 尹武炳 武寧王陵 石獸의 研究 百濟研究 九輯 一九七八年

⑧ 楊寬 中國皇帝陵の 起源と 變遷 東京 學生社版 一九

⑨ 楊寬 右書所引「長安圖志所載 唐高宗乾陵圖」에 依함

⑩ 尹武炳 前掲論文

⑪ 楊寬 前掲書 魏晉南北朝の石像

⑫ 楊寬 前掲書 群像と身分制

⑬ 楊寬 右書所引 唐乾陵勘査記(文物一九六〇年四期)

⑭ 有光教一 前掲論文 憲德王陵條에 當時의 作을 보이는 石蓮台 石人像에 關한 記錄이 보인다 本文萃表石條參照

⑮ 同右

⑯ 創元社 考古學辭典 石柱條(岡崎敬)

⑰ 有光教一 前掲論文

⑱ 楊寬 前掲書 後漢石刻の特色(法六一)

⑲ 同 前掲書 魏晉南北朝の石像

⑳ 文化財管理局編 文化財大觀 史跡篇上 聖德王陵

中村亮平 朝鮮 慶州の美術에서도「文武石人 各一雙이 左右에 相對하고 있다」로 解説하고 있다.

㉑ 李康七 韓國의 甲冑二(考古美術一四二號)에서 우리나라에 傳存하는 갑옷의

例로서 慶州 掛陵을 비롯하여 歷代王陵에 세워진 石彫武人像을 例拳하였다.

나 여기에 대한 具體的인 說明은 없다.

㉒ 邊英燮 前掲論文

㉓ 本文二―2 墓儀石物의 發達參照

㉔ 平凡社 世界美術全集七 中國古代彫刻

㉕ 水野清一 中國佛像の源流、「中國の佛教美術」所收

㉖ 同 六朝藝術に於ける漢代の傳統「中國の佛教美術」所收

㉗ 水野清一 長廣敏雄 龍門石窟の研究(一)、P三五

㉘ 同 右書 P三二

㉙ 關野貞 新羅時代の建築「朝鮮の建築と藝術」所收

㉚ 中村亮平 前掲書

㉛ 關野貞 前掲書

㉜ 邊英燮 前掲論文

㉝ 芬皇寺 雌雄形の 雙獅子樣式은 뒤로 國立慶州博物館 正面階段의 雙獅子 義城觀德洞 三層石塔 兒獅哺乳形 雙獅子로 그傳統이 이어진다.

㉞ 華嚴寺 四獅子三層石塔 以下 獅子石塔의 獅子는 대개 이 型으로 造形된다.

㉟ 姜友邦 前掲論文에서 神文王陵을 皇福寺址 東方二五〇M 地點에 있었던 廢墳으로 比定하고 여기에 十二支神像이 壯嚴되어 있었다고 推定하고 있다

㊱ 姜友邦 前掲論文 新羅十二支護石의 背景.

㊲ 元聖王陵(掛陵)의 墓儀石物은 哀莊王이나 憲德王에 의하여 施設되었을 公算이 크다. 哀莊王代라 하여도 實權은 王叔인 憲德王에 있었던 것이니 憲德王

이 祖父인 王聖王陵에 墓儀를 施設하면서 父王(元聖太子 元聖七年卒 昭聖元

年 追封 惠忠大王)의 陵을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傳眞德王陵이나

方形墳은 그러한 角度에서도 考慮해볼만 하다.